

전 남

장흥 헛개나무·표고버섯, 영암 대봉감, 광양 밤, 구례 산나물

전남도 비교우위 임산물 집중 육성

전남도가 지역 임산물의 브랜드화

를 위해 헛개나무 등 고소득 지역 특

화 품목을 개발, 집중 육성한다.

전남도는 장흥 헛개나무·표고버

섯, 영암 대봉감, 광양 밤, 구례 산나

물 등 지역 비교우위 5개 임산물에 대

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적인 생

산체계를 구축하고 가공·유통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도는 단기 산림소득 임산물의 경

쟁력 제고와 산림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밤·표고·약용·약초류 등 고소

득 전략품목 개발, 집중 육성할 계획

이다.

이에 따라 ▲임산물 생산 규모화·

집단지원을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에 105억원 ▲임산물의 부가가치 창

출을 위한 유통·가공산업 기반 확충

에 29억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

지 조성사업 15억원 ▲송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지원 조성사업 9억원 등

총 158억원을 지역 농가 등에 지원하

고 있다.

전남도와 국립 산림과학원은 공동

으로 5일 장흥에서 단기소득이 가능

한 헛개나무 등 유망 지역 특화 산림

소득작목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현장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도내 헛개나무

재배자, 입입 후계자, 산림조합 및 관

련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헛개나무 신제품과 재배 기술, 헛

개나무 산업화 성공사례, 남부지역

단기소득 품목 개발, 헛개나무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등 헛개나무와 단

기 산림소득 분야 국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참석자간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또한 장흥 헛개 영농조합법인의

헛개나무 신제품 시범 재배지를 직

접 방문해 재배현황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함

으로써 헛개나무 우수 품종 및 재배

기술 등의 연구 결과가 실제 현장에

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김세현 국립 산림과학원 박사는

“지난 1996년 헛개나무 과병(열해 폭

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신제품 개발

연구를 수행해 일반 헛개나무보다 3

배 이상의 과병을 수확할 수 있는 신

제품 ‘풍성 1호’ 등 3품종을 개발했

다”며 “이를 2011년부터 재배농가에

공급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이번 수상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전국 69개

시·군, 8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다.

장흥 헛개나무산업 육성사업단

은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 생

산·가공·연구·마케팅·유통 등에서

행정기관과 연계체계를 갖추고 ‘장

흥헛개나무를 이용한 웰빙토피아’

를 추진해

지나해와 올해

각각 대통령 표

창과 총 6억원의

성과보수를 받

았다.

친환경으로 재

배하는 장흥군의

헛개나무 식재면적은 전국의 약 37%

인 193ha에 달한다.

헛개나무는 지난 2008년 식약청으

로부터 알코올 분해와 간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흥군 헛개나무 육성사업 ‘최우수’

박종국 (주)피엔케이 대표 대통령표창

장흥군 헛개나무 육성 사업이 2년

연속 최우수 농·어촌산업으로 선정

됐다.

4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 일

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농·어촌

산업박람회’에서 ‘장흥 헛개산업육성

사업단’이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돼

박종국(사진) ㈜피엔케이 대표가 대

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전국 69개

시·군, 8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다.

장흥 헛개나무산업 육성사업단

은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 생

산·가공·연구·마케팅·유통 등에서

행정기관과 연계체계를 갖추고 ‘장

흥헛개나무를 이용한 웰빙토피아’

를 추진해

지나해와 올해

각각 대통령 표

창과 총 6억원의

성과보수를 받

았다.

친환경으로 재

배하는 장흥군의



사업을 추진해

지나해와 올해

각각 대통령 표

창과 총 6억원의

성과보수를 받

았다.

친환경으로 재

배하는 장흥군의

헛개나무 식재면적은 전국의 약 37%

인 193ha에 달한다.

헛개나무는 지난 2008년 식약청으

로부터 알코올 분해와 간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가을 햇살 아래 딸기모종 손질

담양군 월산면 월산리 주민들이 들에서 딸기 정식 입식을 앞두고

딸기모종을 손질하고 있다. 따가운 가을 햇살을 피해 펼쳐놓은 우산

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광양 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금물살

부지매입비 29억5천만원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광양시에 들어서는 전남 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에 가속도가 붙

었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2013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동부권 운전면허시험

장 건립 사업비로 1차 부지매입비 예

산 29억5000만원이 최근 반영됐다.

이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의까지 마친

상태여서 사실상 확정된 예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이 나

주시에 위치해 동부권 주민들은 거리

가 멀고 시간도 많이 걸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소재는 광양

시 광양읍 덕례리 일대로 규모는 1만

5000㎡다.

부지매입비를 포함 총 예산을 114

억 5000만 원으로 잡은 정부는 내년

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하고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 이르면 2014년에는 지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신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지매입비가

확보됨으로써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

이 금물살을 타게 됐다”며 “건립사

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별도의

팀을 구성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협력

코레일, 관광 개발사업단 신설

한국철도공사(KORAIL)가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한국철도공사는 정원박람회와 여

수 엑스포 유치 시점과 연계해 철도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3일

순천에 남도해양관광 개발사업단(단

장 박석민·이하 사업단)을 신설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여수 세계박람회

장과 남도의 해양·생태관광자원 등

을 활용해 남도권 관광 수요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

단 사무실을 전남본부와 가까운 순천

역에 개설하게 됐다.

개발사업단은 앞으로 ▲정원박람

회 활성화를 위한 순천시와 공동 마

케팅 및 홍보 ▲정원박람회를 타깃으

로 한 관광 상품 개발 ▲정원박람

보성군 ‘릴레이 태풍’ 피해 110억 넘었다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보성지역의 태풍피해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군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액이 4일 오전 8

시 현재 1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

정 집계됐다. 2개의 잇따른 태풍은 보

성지역에 644mm의 강우량과 순간 풍

속 초속 40m의 강풍을 동반하며 많

은 피해를 입혔다.

보성군 회천면 울포 해수욕장과 해

수욕장은 해일로 16억원의 피해를 입

었고, 벌교읍에 위치한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이 강풍으로 8억

6900만원의 피해를 봤다.

특히 비의 경우 이삭이 패는 시기에

심한 강풍과 바다의 해일 등으로 수



작 마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피해

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보성군과 민·군·경은 합심해 태풍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중해 군수는 지난 1일 울어면 장

동리 피해 하우스 철거 현장을 찾은

박준영 도지사에게 피해상황을 보고

했다.

정중해 군수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보상 방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성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조기선포해 피해

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한다”

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성·김용기기자 kim0686@

중부취재본부=김용성·김용기기자 kim0686@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셀프 클린’ 시스템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

부장 김형준)는 부패방지과 윤리경

영 확대를 위해 5일부터 스마트폰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도입,

이명제보가 가능한 ‘셀프 클린’ 시

스템을 운영한다.

‘셀프클린 시스템’은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익명제보를 토대로 자체

부패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제보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익명

신고창이 뜨고 비호유적 운영체계나

내부 부정부패, 고충 상황 등을 보낼

수 있다. 접수된 제보 내용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메일과 SMS(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를 통해 경영진에 통보

된다.

전남지역본부는 QR코드 이용과

■ 새얼굴

“교실현장의 교육 효율성 높일 것”

류제경 고충교육장

“고충교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일 취임한 류제경(57)

고충교육장은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학

교를 구축하고, 교실현장의 교육

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단중심의 지원행정을 펼치

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류 교육장은 또 “교육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가

족 모두가 화

합하고 단결

하자”고 강조